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로 후원해 주신 금전들은 대부분 학교운영비(학생복지 및 학교시설)로 사용되었고, 일부이지만 대안교육연대 지원금과 홈스쿨네트워크 운영비, 타 대안학교 지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일부는 제천간디학교 생활관 건축에 쓰여졌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천간디학교 생활관 '하늘마루' 건축에 안으로 밖으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총 630명 2,681건 35,168,000원

(주)티에스마이크로 (주)한수섬유 어름수산(주) 가은희 강경선 강기갑 강덕수 강동우 강명우 강민택 강병임 강상진 강석도 강선화 강수들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금 강영상 강용중 강윤주 강은정 강은희 강용택 감지혜 강창석 강혜영 고동주 고수원 고지철 공민준 공치성 곽용호 곽지훈 구경란 구자민 국정훈 권도은 권상대 권수경 권숙영 권영미 권영숙 권영태 권춘현 권혁택 금상호 길주연 김갑유 김경례 김경민 김경민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한 김극준 김기만 김길호 김길화 김남숙 김남규 김남규 김남수 김남식 김남우 김대현 김대현 김도현 김동섭 김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란 김미우 김미정 김민진 김병기 김병석 김봉주 김상덕 김상의 김생연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혜 김성희 김수갑 김숙자 김순겸 김순옥 김순임 김승환 김시선 김영삼 김영숙 김영숙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영희 김예동 김옥자 김옥주 김 용 김용경 김용규 김용구 김용주 김용철 김용철 김용필 김원경 김유신 김유태 김윤찬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인철 김일지 김재구 김재권 김재수 김재우 김정규 김정미 김정민 김정애 김정오 김정자 김중덕 김중성 김중용 김중우 김준혁 김준희 김준근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용 김진오 김진용 김진우 김창석 김명호 김학식 김학희 김현기 김현식 김현일 김현진 김혜민 김혜은 김홍순 김홍일 김홍진 김희교 김희교 김희정 남경혜 남경호 남궁원 남승록 남양숙 남우용 남지화 남혜진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노윤희 노희석 도충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류영숙 류준희 마미경 마석훈 문성룡 문신호 문영미 문현주 민경주 민병석 민영기 박경미 박경현 박기석 박기홍 박미경 박미애 박민수 박복자 박봉규 박상남 박상진 박상현 박선미 박성수 박성열 박성용 박수정 박시홍 박연하 박영선 박영자 박영희 박외순 박용규 박용기 박윤태 박인옥 박재능 박재성 박정기 박정림 박정범 박정아 박정혜 박종국 박종원 박진석 박진수 박진현 박진호 박창순 박채영 박철운 박현주 박현준 박현향 박형규 박희리 박혜선 박환홍 박홍식 박춘배 배정옥 배진우 배필능 백동민 백동훈 백명기 백미숙 백승훈 변기영 변문기 변영애 변윤수 변현정 부상준 빈종일 서미화 서석중 서계정 서인자 서정현 서진삼 선영비 성동제 성정미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재익 손현석 송선경 송준성 송하동 신관수 신란주 신미재 신부순 신선영 신승임 신승순 신주영 신진철 신창삼 신현덕 신현정 심예인 심재용 심형섭 안미정 안수환 안승범 안영경 안정환 안주연 안진희 안춘자 안향석 안희종 양병만 양병원 양서희 양선희 양성자 양소영 양수연 양신영 양정숙 양해동 양효정 양후남 엄도경 엄정미 여태연 연혜경 연계선 오강순 오경숙 오기숙 오길환 오병갑 오보환 오익문 오전옥 오지혜 오태경 오현옥 왕정환 왕중석 우기백 원영준 원현구 유경우 유덕선 유방훈 유상봉 유수진 유연철 유영택 유은미 유인수 유정훈 유준하 유중선 유한복 유항옥 육기엽 윤규우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석찬 윤숙경 윤요성 윤은주 윤태일 윤한석 이갑조 이강연 이강민 이강훈 이경연 이광수 이광일 이구라 이규홍 이기하 이기현 이낙원 이덕순 이도중 이동을 이명조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무섭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나 이마선 이병순 이병운 이보란 이상진 이상구 이상옥 이상현 이상화 이상훈 이선애 이선영 이성택 이성호 이소안 이수경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순임 이승룡 이승민 이승섭 이승연 이승옥 이승희 이신혜 이신희 이양환 이영남 이영호 이요순 이요훈 이요복 이우춘 이우진 이윤숙 이윤승 이은신 이은주 이인숙 이일우 이재성 이정미 이정석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업 이준용 이진석 이진숙 이춘식 이하영 이한진 이한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철 이혜림 이호진 이호창 이흥구 이화숙 이희정 이희정 임명희 임병포 임영빈 임오섭 임은숙 임진희 임형택 장계현 장규식 장남영 장명숙 장명원 정미자 정세희 정인옥 장정에 장진원 장현정 장희숙 전국진 전미영 전서연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완기 전준철 전해영 전홍희 정난주 정다운 정덕희 정명옥 정문자 정미소 정병희 정상용 정상훈 정성현 정성욱 정순녕 정연희 정영수 정영아 정영주 정영천 정영환 정용국 정우석 정의숙 정이영 정의화 정인숙 정재금 정재수 정재우 정정실 정종미 정중숙 정중태 정지은 정태균 정해정 정현숙 정희도 정희정 조경숙 조경희 조규석 조만진 조미순 조배원 조봉석 조상희 조성숙 조성욱 조숙자 조윤희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창용 조철연 조혜정 조희정 주상영 주성수 지연철 지재원 진경아 진상정 진성기 진영승 진은주 진정란 진정에 차영순 차은경 채신자 천희진 최경우 최귀중 최도연 최문택 최미숙 최미애 최상윤 최선아 최선희 최성철 최소정 최영준 최 용 최은미 최인화 최재민 최재호 최재훈 최정옥 최정윤 최종선 최종현 최준석 최진욱 최해만 최화영 하경희 하광영 하두철 하승렬 하영아 하태광 한광덕 한동열 한상철 한승동 한승동 한용택 한점숙 한정민 한 현 함상아 함재도 허성립 허성희 허영순 현은영 형임순 홍병선 홍수연 홍윤숙 홍주영 홍창식 홍희경 황국덕 황돌남 황명숙 황명숙 황용덕 황지연 황호영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소식지를 못 받고 계시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후원인이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653-5791 담당 김윤하) 후원인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소식지에 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얘기를 담은 글을 보내주세요. 주변에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기존회원분들도 학교로 연락주시면, 추가 등록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학교홈페이지의 CMS후원란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도움들이 있었겠지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함이 송구스럽습니다. 혹시나 누락되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과 '자발성' 의 제천간디학교

계간 간디IN

계간 간디IN 발행일 2007년 6월 15일 통권 제5호(2007년 봄호)
발행처 제천간디학교 신문부 '일상다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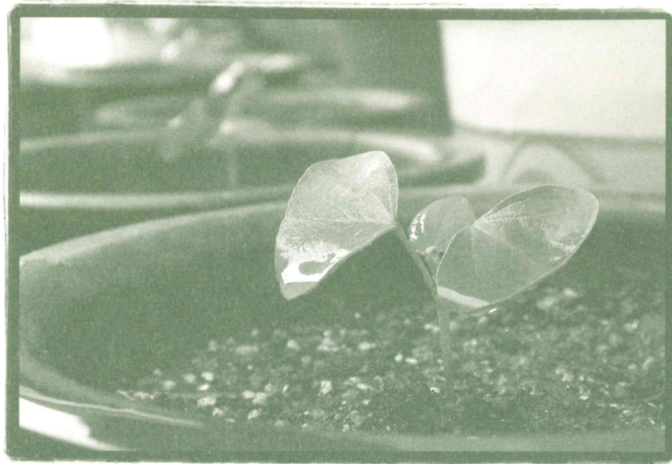
2007

봄



제천간디학교

<http://gandhischool.org>



눈길 닿는 곳마다
초록이 환합니다.
숲은 숲으로
나무는 나무로
풀은 풀로 초록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는 대로
햇살 가득한 대로
모든 것들이 초록의 시간입니다.
그 푸른 시간 속으로 걸어갑니다.
초록 일상이
초록가지를 뺀어 환합니다.

- 간디인

| 표지사진 |
2007년 봄



제천간디학교 소식지 **계간 간디IN**

2007년 6월 · 제5호(봄)

어는 글	04	이별 준비 오필선
주제가 있는 이야기	06	3학년들의 제주 봄나들이 박인혜
떠남	08	간디 새내기, 장흥에서의 한달 이현무
	10	나랑 놀아줘 배나루
	13	평화를 찾아서 이슬비
	14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조하늘
	16	46박 47일 배낭여행 조하늘
	18	시끌벅적 4, 5학년들의 움직이는 학교 조하늘
인물 탐방	20	그림의 새 물결, 김태진 쌤을 만나보세요 라운정
동아리한마당	22	신명나는 바람, <솔피바람>을 찾아서 장희숙
사설	24	고등과정, 지금 만족하십니까? 라운정
교과속으로	26	'눈으로 보는 민주주의' '눈으로 보는 민주주의?' 장성규
기속사 엿보기	28	2007년도 신선하고 새로운 동장이 탄생하다 윤영미
단신	30	간디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MS추원회원	32	

발행일 2007년 6월 15일	발행인 양희창	만든지 제천간디학교 신문부 '일상다반사'
E-mail aaaa0_0@hanmail.net	주소 390-852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 1리 92-3	
전화 043-653-5792	전송 043-653-5781	

이별 준비

오필선 _ 간디학교 교사

약 8개월여의 병원 생활 끝에 아버지께서 퇴원하셨다. 아버지 연세 이제 여든에 가깝고 나는 그 연세의 반에 가까운 나이. 부자 사이에 깊은 대화나 진한 일화 없이 우리 부자는 평생을 무덤덤하게 지냈다. 내가 학교생활을 하는 사이 아들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자형들의 몫이었고 나는 큰 고민 없이 그 역할을 덜고 지내는 것에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사고 당일 갈갈이 찢겨진 아버지의 복장을 수습하면서 나온 것들. 손전화 사용이 미숙하신 아버지는 '긴급 연락처'란 제목에 큰 누나, 자형부터 막내이들 순으로 직장과 손전화 번호가 적힌 메모를 반듯이 접어 두툼한 비상금 봉투와 함께 벨트 가방 한 주머니에 간직하고 다니셨다. 십수년 이상 서울 근교를 자전거로 누비고 다니시다 얼굴이 여러 번 땅바닥에 깔린 경험상 늘 교통사고를 예상하고 다니신 듯 아버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놓으신 것이다. 몇 년 전에는 불현듯 당신 혼자 사진관에 가서서 영정사진을 찍어 오서 거실 한 칸에 걸어놓으셨다. 이 때까지만 해도 죽음과 이별, 부모님의 삶에 대해 생각 없이 살아오던 나는 늦게나마 아버지의 사고를 접하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연세 되도록 부모님 앞으로 보험 하나 들어 놓지 못한 무관심, 가해자 측 보험 회사와의 짜증나는 줄다리기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한 개인의 나약함에 화가 치밀기도 하였다. 그러다 늦은 밤 중환자실 문밖을 서성이다 문득 나이 40이 다 되 가도록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들었다.

‘항해도 연백군 해성면 해남리 184 번지’

몇 년전 아버지께서 적어 주신 아버지의 고향 주소 한 장과 가끔 가다 꺼내 보곤 하는 할머니의 사진(할머니의 생전 사진을 입수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이 내가 아는 아버지의 과거 중에 가장 뚜렷한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힘들었던 6·25 전쟁 중에 접잖으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연으로 그 거친 해병



대에 2기로 입대하셨는지, 반면에 비교적 부유했던 큰 아버지는 어찌하여 막내 동생이 해병대에 입대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어찌하여 할머니 할아버지와 막내 삼촌, 두 분 고모는 월남을 하지 않으셨는지. 가끔씩 궁금해 하면서도 나는 감히 아버지의 무뚝뚝함을 뚫고 여쭙 생각을 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학교 들어가고 부터는 몸 여러 군데 어른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웬지 모를 부끄러움에 나는 아버지와 목욕탕을 가본 일이 없다. 사고 이후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들어진 아버지에게는 손발이 되어 가려운 등살을 밀어줄 손이 필요했고 그동안 자형들에게 맡기고 있었던 내 역할을 조금이나마 가져왔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목욕도 하고 손도 잡았다. 그동안 두 부자의 서먹함을 아버지 탓으로만 돌려왔고 멀리 떨어져 가끔씩 안부전화 드리는 것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자족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통원 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으신다. 수술이 또 한 차례 남아 있고 사고 전처럼 자전거를 타고 마포에서 강화도, 분당사이를 왕복하시기는 힘들 것이다. 몸이 회복되셔서 퇴원 전에 분당 탄천을 환자복 차림으로 산책하시며 검은 선그라스, 달라붙는 옷차림의 자전거 동호인들을 바라보며 혹시나 지날지 모르는 친구분들을 막연히 기다리시던 모습이 평생 가슴 속에 남을 것 같다.

지난 5월 마포 집에 들러 아버지가 간직하시던 옛 사진들을 연대 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해병대 시절 팔각모를 쓰고 전우들과 찍은 사진, 그 옛날 연애 시절에 넥타이 차림의 아버지와 고운 한복차림의 어머니가 '창경원'에서 손잡고 찍은 사진. 이제는 더 이상 교류가 없는 친척들과 화목했던 순간. 그 사진들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다. 어느 사진부터 꺼내들어야 할지는 모르겠다. 해병대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평생 무용담을 해보신 적이 없다. 결혼 이야기?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는 이야기밖엔 들은 적이 없다. 아직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두 분의 과거를 나의 삶과 덧붙이는 작업이 내게 남은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은 알고 있다. 나이든 두 남자가 알몸으로 목욕탕에도 가 봤으니 부끄럽다거나 어색할 것도 없다. 가정학습 때 아버지 좋아하시는 평양냉면 한 그릇 사드려야 겠다. **2011년**

3학년들의 제주 봄나들이

박인혜 _ 기자 3학년

올해는 무빙스쿨을 제주도도 다녀왔다. 그런데 막상 제주도의 경험을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하지만 제주도를 걸어 다니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더위와 갈증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해서 추위는 걱정은 없었지만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걸을 때 덥고 지쳐서 그런지 처음에는 걷는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지루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고 가끔 숙박할 때는 제주사람들이 우리를 손님으로 대접해 주셔서 고마움과 동시에 신세졌던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걷는 동안 매번 숙소를 옮겨야 해서 이동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했다. 이리저리 다니고 쫄쫄맬 무렵 휴식 겸 단체로 마라도로 갔다. 섬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작았지만 예뻐다. 자전거도 타고 한바탕 신나게 놀았다.

하지만 며칠간 휴식을 하고 다시 걸으려니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때는 체력도 많이 늘어서 1시간 걷는 것도 아무것

도 아니었다. 그렇게 전체 5일을 견고 들살이 학교에 왔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 학생수가 7명 정도 되고 이동수업을 한다. 여행도 자주 가서 그런지 우리가 시골 벽적하게 들어왔을 때 학생이나 선생님은 보이

지 않았다. 그곳에서 긴장도 풀고 휴식을 만끽하는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이 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렇지만 들살이 학교에서도 우리만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오자마자 한라산 등반을 갔다. 비록, 땀으로 얼룩져서 왔지만 좋은 구경하고 온 거라고 생각했다. 내려와서 마침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측 청소년 대표팀과 남한의 청소년 대표팀 간의 축구경기가 있어서 보러갈 애들은 4시에 출발했다. 이 날로 인해서 우리 반 여자애들 거의 대부분 축구선수에게 반해서 4번, 7번 11번 선수... 축구선수 얘기를 쉴 새 없이 재잘거렸다.^.^ 들살이 학교에서 그 밖에 다른 활동도 했지만 막상 들살이 학교 애들 하고는 얼굴도 못보고 지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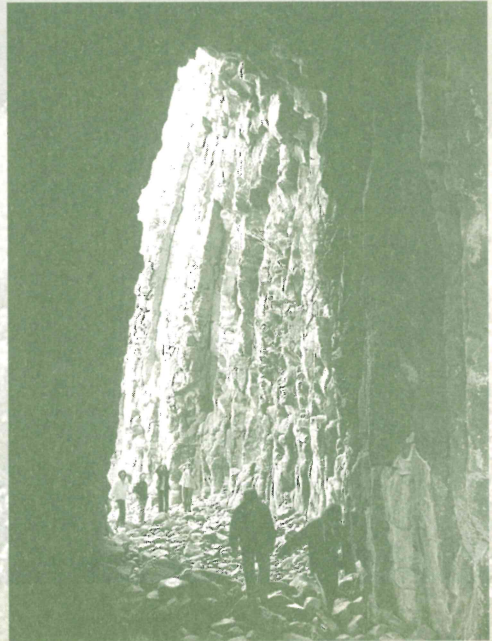


제주도에서 막바지에 이를 때 쯤 2차 무빙스쿨 때 가야 할 다른 대안학교 (마리, 금산간디, 산돌, 참꽃, 풀무) 다섯 군데에서 각자 한 학교를 선택해서 4~5명 씩 가야하는데 거의 풀무와 산돌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했지만 한곳으로 몰리는 인원 문제가 있어서 정할 때 다들 고생했다.

그 후 2차 무빙스쿨 때는 3일간 금산간디 학교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남은 하루는 민욱이 생일이고, 해서 우리끼리 밤새 놀다 지쳐 잠들었다. 다음 날은 결국 각자 자기가 가야할 학교로 흩어져야 했다. 헤어질 때 아쉬움과 불만도 있었지만 막상

가서 교류할 때는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서 많이 배우고 체험하며 우리학교와는 다른 독특함이 있었지만, 그게 각 학교마다 개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흩어져서 다른 대안학교 체험할 때는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했다.

그렇게 긴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모두가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걷고 난후 후유증도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아직도 걷는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한다. 그때는 힘겨움 속에서 성장한다는 말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지나고 보니 웬지 알게 모르게 많이 큰 것 같다. **2011**



간디 새내기, 장흥에서의 한달

이현무 _ 1학년

처음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장흥 땅을 밟았을 때 알 수 없는 꽃내음이 풍기는 것 같기도 했다. (자, 지금부터 화려했던 나의 장흥 첫 무빙스쿨 이야기가 시작된다.)



유기농 배 밭에서 일하기,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약산도 섬 체험!!!

기억에서 가장 남는 것은 야생초 판매이다. 당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울트라호러판타스틱한 기분은 아직도 내 마음에 생생하다. 주마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 장흥. 나는 충청지역 아이들하고 힘이 들기도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장흥까지 찾아갔다. 용산면까지 와서 도무지 길을 알 수 없어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정남진 생약초 체험장에 도착했다. 며칠 사이에 친구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았다. 머리도 염색하고 안경도 바뀌고 물론 나 또한!!

다 토요일에 열리는 정남진 토요일시장에 가서 야생화를 판매하는 것인데 나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장사꾼은 역시 갖춰져야 할 것이 많은 법! 산세베리아, 매발톱, 천남금, 석곡, 돌단풍, 소엽풍난, 대엽풍난 같은 여러 풀꽃들의 이름과 특성을 열심히 기억했다. 열심히 팔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장사가 하고 싶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손님들을 대하는 방법,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눈에 띄게 하는 법, 앉아서 팔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팔기가 자연스럽게 됐다. 역시 돈 버는 재미가 가장 쏠쏠하였다. 하도 장사에 빠져 팔다보니 옆에서 장사하던 아저씨가 너는 장사에 소질이 있다면서 과자를 만원 어치

방에 짐을 풀고 밥도 맛있게 먹고 맞은 첫날밤,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마음이 두근두근했다.

첫 번째 강의는 지렁이 강의였다. 처음에는 지렁이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지렁이의 효율성을 설명했다. 나는 처음 알았다. 설마 지렁이 학교가 있을 줄이야! 그 뒤로 여러 가지 강의와 체험이 이어졌다. 천연염색, 판화 만들기, 도자기 체험, 생태통간 만들기, 생약초 만두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사 주시며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하였다. 마지막에는 뿔이 통하여 엄청난 매출이!!!

그 당시 약 한 80만원에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다. 아직도 그 느낌이 난다. 돈뭉치의 두툼한 느낌이. 우리의 수익은 16만원이었고 회의 끝에 우리는 '친환경 아이' 라는 방과 후 학교 일일교사를 할 때 아이들 간식비로 그 돈을 쓰고 남은 돈으로 는 고기를 사 먹기로 했다.

또 나의 무빙 가운데 약산도에서의 짧고 행복하던 하루! 장흥에서도 완도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완도군에 있는 약산도 (약초가 많이 나서 약산도라고 한다). 바다와 나무들이 아담하게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민박집에 도착했다. 약산도에서는 특별하게 활동한 것이 많이 없었다. 우리가 꽃을 팔아서 번 돈으로 고기와 쌈을 싸 먹을 야채들과 밥을 챙겨서 바다가 밀려오면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부슬부슬 비를 맞으면서 맛있게 먹고 한밤중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아무쪼록 친구들이 그 뒤로 몸에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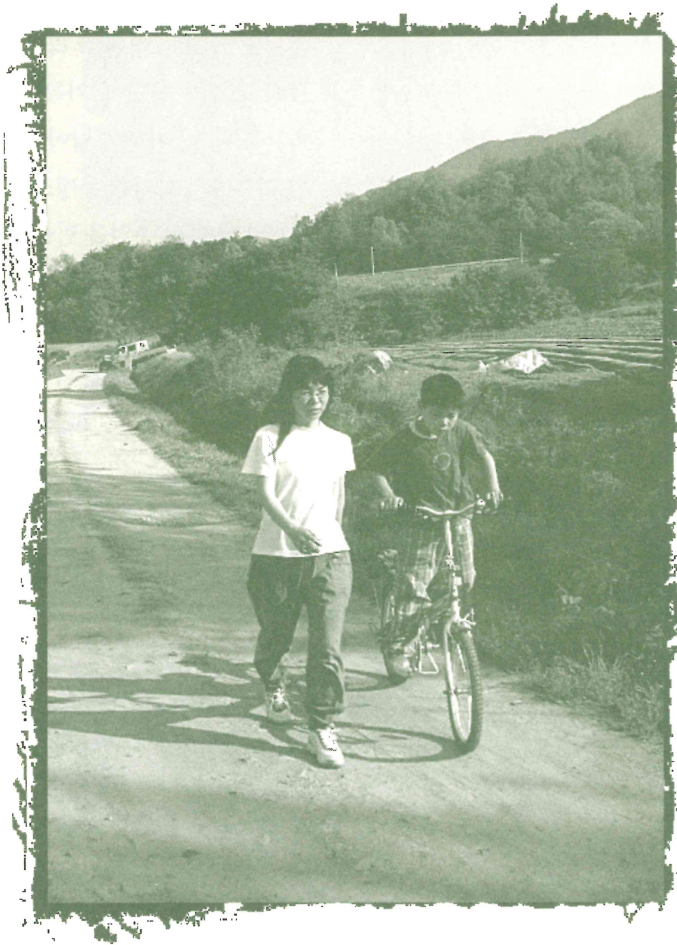
약산도에서 들어오고 그날 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에게 사물을 가르쳐주실 김영란 선생님이 오셨다. 모듬북 공연하는 것을 보고 뿔이 꽃힌 나는 모듬북을 하게 되었다. 북을 치면서도 참 재밌었던 일이 많은 것 같다 하나하나 배워 가면 갈수록 9~10시간 동안 노력 한 결과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손에다 채 두개를 주면 어디서나 무의식으로 치게 될 만큼 재미를 느낀 것 같았다. 드디어 공연 날 날마다 연습을 하면 잘 맞지도 않고 그러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사물의 소리가 강당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때 난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이런 느낌으로 나의 화려한 무빙스쿨의 막을 내렸다.

나에게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신 생약초 체험장 선생님들과 우리들 때문에 고생하신 장희숙 선생님, 장춘봉 선생님, 양자영 선생님, 김영란 선생님께서 감사드리고 내가 간디학교 학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2011**



나랑 놀아줘!

배나루 _ 3학년 김찬호 어머니



“나루! 왜 그렇게 빨리 걸어?”
여섯 살 영재가 옆에서 졸졸 따라오며 고개를
치켜들고 묻는다.

“회의 시간 전에 도착해야 해.”

“회의가 뭐야?”

“뭐... 서로 잘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

“재미있어?”

“재미없어.”

“그럼, 회의하지 말고 나랑 놀자!”

“약속해서 가야 해.”

“재미도 없는데 그렇게 빨리 가야 해?”

“...오늘은 안돼, 나중에 놀아줄께”

“치~, 나중에 어딴어!”

“.....”

그날 있을 회의를 생각하며 머리가 몸보다 먼저
가고 있었다. 조용하다 싶어 뒤를 돌아봤다. 영재
는 내 바쁜 걸음이 먼저 와버린 곳에서 노오란 감
국을 꺾고 있었다. 감국 몇 송이를 손에 들고 냄새
를 맡다가, 빨간 찹쌀 열매를 따려고 애쓰고 있었
다. 가을 수채화 같았다. 영재 엄마가 물들여 만든
보랏빛 원피스를 입은 영재가 가을이 깊어진 논둑
길에 스며들어 있었다. 학교를 따라 내려온 아이
들에게 학교나 관사는 이미 재미없는 놀이터였고,
학교 앞 냇가나 학교 뒤 야산의 솔숲, 그 너머 아
름드리 정자나무로... 그렇게 점점 놀이터를 넓혀
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요정처럼 불쑥
불쑥 나타났다.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영재가 내
귀에 대고 계속 묻고 있었다.

“나루! 왜 그렇게 빨리 걸어?”

그리고 어느 날 학교로 가는 아침 길에 나는 내
걸음을 보았다. 농로를 걷고 있었는데도 내 걸음
은 1호선 신도림역 출퇴근 시간을 빠져나가야 하
는 도시인의 걸음걸이었다. 걸음을 늦추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을 알아차렸고, 어깨의 힘을
빼니 내 호흡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 겨울 내내 나는 천천히 걷기와 호흡하기를
연습했다. 하얗게 서리 내린 논둑길을 천천히 걸
으며 차갑고 건조해서 상쾌한 공기를 가슴이 알싸
하도록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했다. 맑고 찬
공기가 익숙지 않아 객객거리면서도 시원하고 달
콤한 공기를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했다. 산책하다
빨간 찹쌀 열매 몇 가지 꺾어 작은 항아리에 꽃
았는데 멋진 동양화가 되었다. 영재는 그걸 벌써
알고 있었으리라. 일을 그만 두어 더 이상 회의는
하지 않았고, 대신 아이들은 집으로 놀러 왔다.

찬호는 꼬리처럼 따라붙던 현이에게 한글을 가
르치고, 나는 우리 집 부엌이 좋다고 찾아오는 옆
집 아줌마들과 고무마, 감자를 아궁이에 넣어 간
식을 만들었다. 누구 집 애는 여기 내려와 처음
봤을 때 겨우 걸었는데 벌써 이만큼 컸더라 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사람들 얘기가 불쏘시개가 되
곤 했다. 아궁이 장작불 속에서 따뜻한 시간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애꿎은
장작만 계속 던져 넣고 있었다. 그렇게 방바닥이
타도록 아궁이에 불을 넣고 있을 때 함박눈이 내
리기 시작했다. 밤이 새도록 내린 눈은 동네 차도
를 점령했고, 까마득한 산길을 넘어가는 차도는
차량통행이 중단되었다. 차가 다니지 못하는 눈
길은 우리에게겐 신나는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
은 미끄럼을 타고 여자들은 짝 지어 나와 눈길을
걸으며 밤새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데 마음도 하~
얗게 내리더라며 시인들이 되어 있었다. 눈을 핑
계로 뒤늦게 곡주를 시작하던 남정네들은 마을이
눈 속에 푸욱 쌓인 아침을 맞도록 잠 속에 빠져
있었다. 아마도 여자들보다 마음이 더 많이 내려
앉았었나 보다.



학교를 떠난 뒤 첫겨울은 많이 추웠고, 넉넉하지도 못했고, 몸과 맘이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 더구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없어 보였다. 녹색으로 필러이는 푸른 희망 하나 보고 달랑 내려온 이들에게 참 막연한 겨울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한결같았다. 손등이 터져라 눈싸움을 하고, 가끔씩 한 집에 모여 꺾꼬만 텔레비전으로 만화영화도 보고, 놀다가 졸리면 한 이불 속에 모여 잠을 자고, 배고프면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을 먹었다. 여전히 씩씩한 아이들을 보며 여자들은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사랑방을 만들었다. 공부, 그림, 노래, 요가, 만들기, 책읽기 같은 재주들을 발휘해 돌아가며 함께 놀았다. 떠나려던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더 버텨보자고 했고, 아이들 사랑방을 버텨목 삼아 여름엔 외부 아이들과 캠프도 하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놀았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되고, 여름이 오고 계절이 바뀌며 아이들이 하나 둘 떠나갔다. 부모들이 동네를 떠나고 아이들도 떠나고 있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해 어렵게 학교 관사를 얻어 만들었던 아이들의 사랑방 공간도 학교에 돌려주었다.

그해 가을, 아이들이 대부분 떠난 동네에서 나

는 앞치마 가득히 감국을 따다가 마루며 방에다 실을 쳐 놓고 거기에 주렁주렁 감국을 꿰어 놓았다. 알싸하도록 진한 감국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허전했다. 코끝에 노오란 감국꽃가루를 잔뜩 묻히고 헤헤거리며 웃던 영재,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예쁜 비랑 수줍음 많던 나무, 통통하고 귀엽던 강이와 묵묵한 아가 산이, 무슨 일에도 아랑곳 않고 낙천적인 봄이와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학교는 물론 온 동네를 제 머리 속에 백과사전처럼 빨리 꿰고 있던 현이, 천의 얼굴과 표정으로 웃음을 주던 현욱이, 주위의 사랑으로 의젓해가던 장난꾸러기 정욱이, 마지막까지 사랑방을 지키던 재윤이... 보기만하면 놀자, 놀자하던 아이들이 없는 동네는 너무나 쓸쓸했다. 그 다음해 겨울 나도 그곳을 떠나왔다.

눈이 커다란 봄이와 백과사전 현이가 아직 거기에 있어서 나는 가끔씩 돌아갈 고향 같은 그리움을 갖곤 한다. 특히 봄에는 읍에서부터 먼까지 들어가는 그 기다란 길이 온통 벚꽃 아아치가 되어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되곤 했었다. 이번 봄에는 그 기다란 벚꽃길을 지나며 꿈꾸듯 지나온 그 겨울을 다시 기억해보고 싶다. 이 겨울이 좀 길다. **이진우**

평화를 찾아서

이슬비 _ 기자 4학년

이번 4학년 무빙스쿨 주제는 평화는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된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무빙스쿨 역시 다양했다. 같은 주제로 하지만 각자 다른 무빙스쿨을 했기 때문이다. 다들 평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본다.

평화를 봉사의 형태로 접근한 팀이 가장 많았다. 다리공동체와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 갔던 이운 양과 장시내 양을 비롯해 전유림 양과 이지선 양은 꽃동네에 갔다. 전종명 군도 새생명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한이정 양과 라운정 양은 아름다운가게(재활용하는 생활운동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과 제 3세계를 돕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또 예술코드로 접근한 팀들도 있다. 5학년 지용군과 함께 김강산 군과 이태근 군은 뮤지컬과 춤을 배웠다. 이어서 한진규 군과 박민주 군, 5학년의 구펠릭스 군은 도자기를 배웠고, 이어진 군, 박철중 군, 유태영 군, 5학년의 서한솔 군, 김동희 군은 평화판따라라는 음악공연팀을 꾸려 평화공연을 했다.



그밖에도 다양한 활동이 많았다. 윤이원 양과 김혜림 양은 청소년인권 NGO 단체에서 단체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미학혁명(미친학 교혁명)을 이끌었다. 양은정 양은 제주도환경과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새를 주제로 활동했으며, 경제에 관심이 있던 이성주 군은 대안무역을 주제로 활동했다. 마지막으로 나는(이슬비)는 전쟁을 주제로 5학년 이나리 양과 여러 곳을 떠돌며

영상을 제작했다.

평화에 대해 전쟁이나 억압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나눔이나 조화 또는 내적인 평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더 많다.)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평화이다. 이번 무빙스쿨은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주제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 같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처음엔 감도 안 잡히고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토대로 다음엔 그리고 내년 후배들은 더 알찬 무빙스쿨을 하기 바란다. **REBIN**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조하늘 _ 기자 2학년

약 1주일 동안 가정학 습을 마치고 원주 귀래 면사무소 앞에서 만나 움직이는 학교를 시작했다. 우리는 귀래면사무소에서 좀 더 들어가 우리들의 숙소가 될 곳을 찾아갔다.

모인 첫날부터 마음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나흘 동안 이어진 강의가 끝난 뒤 여주 신록사까지 자유이동을 하여 도착해 1박2일의 템플스테이를 했다.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들이었다. 우리들도 생각보다 잘 따라가고 있었다.

하루 휴일을 갖고 2학년 자체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봐두었던 찜질방, 중국집을 갔다. 5일 동안이었지만 쉬지 않고 진행된 프로그램 도중에 휴일과 찜질방은 조금이나마 피로회복제가 되어 준 듯했다. 황금 같은 휴일을 보내고 원주참꽃학교와의 교류, 솟대 만들기를 예정대로 순조롭게 보내고 '진동'이라는 극단에서 오신 쌤들 세 분과 약 1주일 정도를 함께 보냈다.

수업 중간에 쌤들과 짜고 다른 아이들을 감쪽같이 속인 적도 있었고 많은 게임들도 했었고 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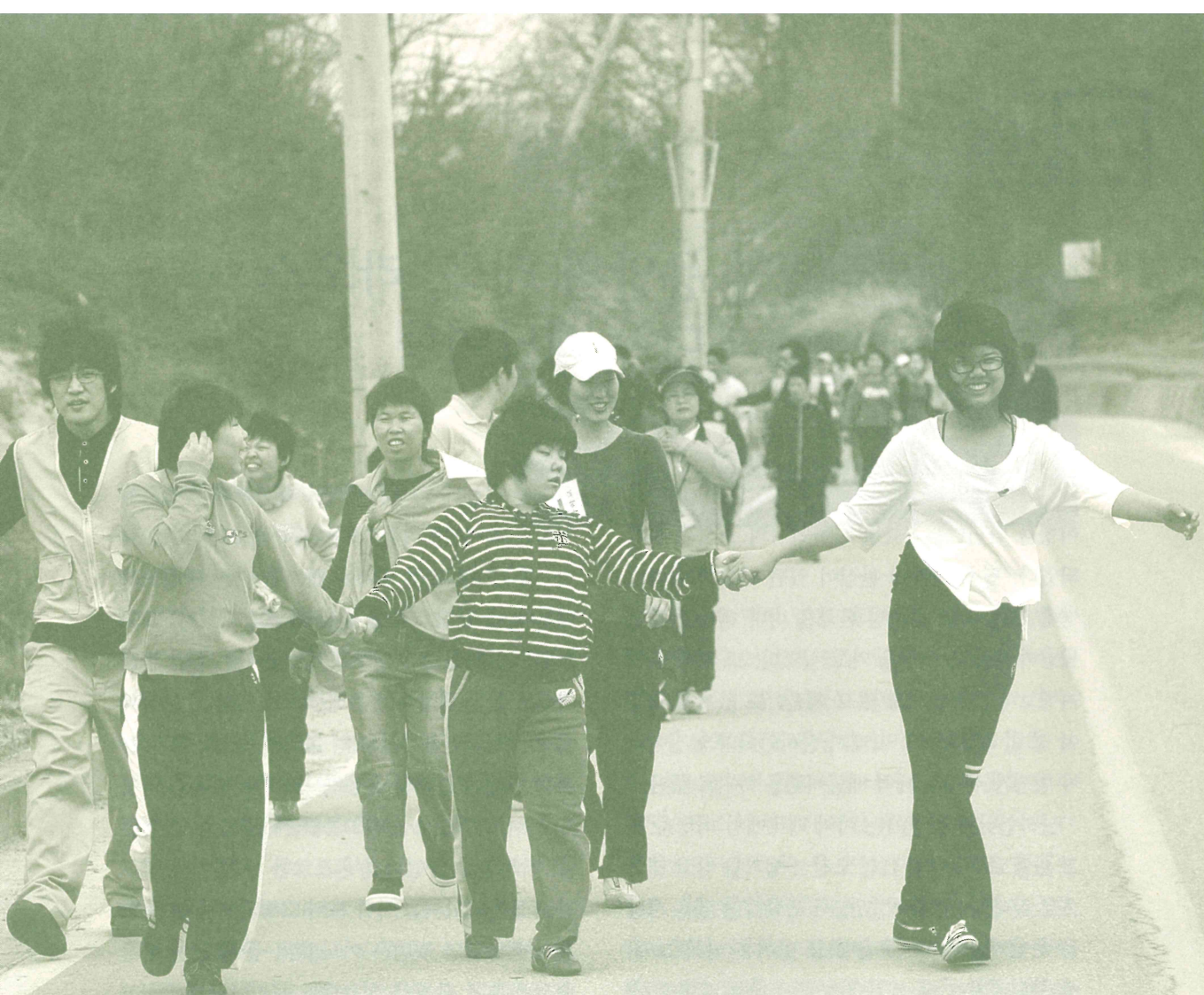


컬, 몸짓도 배우고 속마음 털어놓아 얘기하기도 했었고... 수많은 일들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 헤어지는 시간이 오고 말았다. 즐거웠던 시간들도 좋았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나를 찾는 방법인

가? 나를 찾을 수 있거나 한 걸까? 하는 의문도 많이 들었다.

이 상태로 다음 일정한 봉사활동을 가다간 내 간수도 못 해 욕이나 먹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 장애우들을 처음 대하는 거라 겁도 조금 났다. 하지만 막상 제천에 있는 시설 청암학교와 이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보니 괜한 걱정엔 괜한 고민들이었다. 처음 봐서 낯설지만 웃으면 인사해 주어서 마음이 편해졌고 또 나를 너무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나의 짝꿍 우진이는 6학년 다래 반이었다. 다른 반보다 유난히 학생 수가 많아 담임, 부담임에 보조 선생님까지 있는 반이었다. 날씨가 좋아 썩도 캐러 가고, 소풍도 많이 가고, 지렁이 사육장 견학도 가보고, 너무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곳에서 한 일은 이곳에 쓰기엔 너무 많다. 장애인의 날 기념



세모돌이 대축제, 거북이 마라톤 대회 같은 큰 행사들도 함께 참여했다.

헤어질 때가 되니 그제서야 모두가 눈에 들어온다. 이름도 거의 알고 그들도 날 알아보고 좋아해 준다. 하지만 시간은 역시 너무 빠르다는 것... 헤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랑 이것저것 자주 만난 해경이 언니, 날마다 웃으면서 뽀뽀해 준 예쁜 예진이, 내가 좋다고 반지를 만들어준 병대 오빠, 지나가던 나를 날마다 불러 세워 안기던 재민이, 스킨십 너무 좋아하던 길용이, 그리고 사랑스런 다래반 아이들, 선생님들 그 밖의 너무 많은 사람

들에게 나는 신세만 지고 온 것 같다. 정말 때 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대해 주어 너무 고맙고 함께 지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나에 대한 감사함도 느꼈다. 꼭 다시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에게 또 다른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분들과... 1학년 때와는 너무 달랐던 2학년 움직이는 학교. 싫다고 투정도 많이 부렸지만 끝날 때 좀 더 하고 싶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보람이었다. 정말 나를 찾았느냐고 물어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같다. **2010**



46박 47일 동안의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배낭여행

전유림 _ 4학년

지난 겨울방학 동안 동남아 쪽으로 혼자서 배낭 여행을 다닌다는 5학년 산하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평소 여행에 관심이 있던 나도 찬바람이 췌췌 부는 추운 겨울인 한국을 떠나 해가 쨍쨍한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다. 또 혼자 하는 여행보다 산하언니도 있고 범진이도 있어서 걱정이 덜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산하언니와 범진이와 나 이렇게 셋이서 태국 배낭여행을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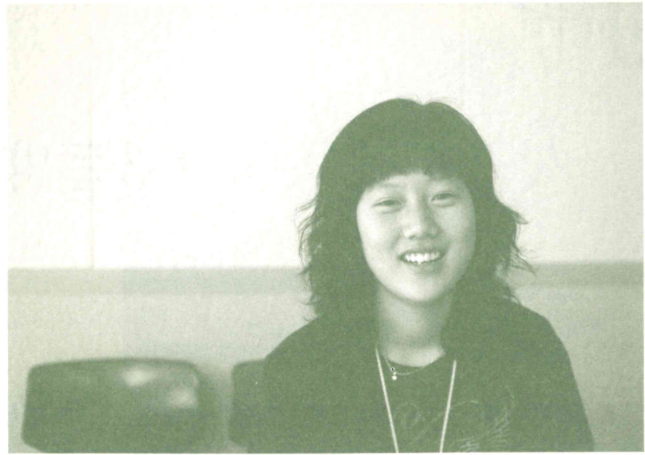
산하언니와 범진이는 이미 태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고 나는 1월 11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갔다. 사실 46박 47일이 짧았다면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이곳저곳을 하도 많이 다녀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 다 쓰기에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재미있었던 일들을 쓰려고 한다. 재미있었던 일들이라고는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여행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참 많다.

우리는 태국뿐만 아니라 태국 옆에 있는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다녀왔는데 이 나라들이 서로 너무 가깝다 보니 국경만 넘으면 바로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강만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다. 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국경을 넘어 다음 코스인 라

오스를 갔는데 라오스에서도 북서쪽의 꼭짓점에 위치한 휘이싸이라는 곳을 거쳐 루앙프라방을 갔다. 태국이랑 붙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돈 단위도 다를 뿐더러 말도 다르다. 나도 그렇고 산하언니도 그렇고 여행을 하는 동안 현금 카드로 돈을 뽑아서 썼는데 라오스에는 큰 도시가 아니면 현금인출기가 거의 없어서 산하언니가 가지고 있었던 달러와 신용카드가 아니었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노숙자 생활을 할 뻔했다. 하지만 산하언니의 돈으로만 세 명에서 먹고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부유하게 라오스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돈이 많이 부족해서 하루에 세 끼를 먹는 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3천원도 안 되게 먹고 군것질도 마음대로 못 했다.

또 루앙프라방에 있으면서 몸이 갑자기 아파서 유명한 동굴도 못 가고 한 2일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아팠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몸이 빨리 괜찮아졌다. 시간도 없고 학교 일정에 맞추다 보니 일정이 빡빡해졌다. 그래도 돌아다닐 곳은 다 돌아봤던 것 같다.

라오스에서는 정말 먹는 것을 많이 못 먹고 돈이 없다 보니 정말 힘든 것이 따로 없었다. 또 거기에서 우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버스였는데 나라가 넓다보니 버스를 한 번 타면 기본 10시간은 가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버스를 타 본 적이 없는



나에겐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다. 운이 좋으면 시설 좋은 2층 버스를 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황홀하게 아무 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엄청 작은 버스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앉아 에어컨도 없는 버스로 간다. 에어컨이 없다 보니 창문을 다 열고 가는데 흠길 위를 갈 때는 흠이 버스 안으로 다 들어와서 온갖 먼지들과 흠바람 때문에 얼굴이 감동이가 된다.

웨이씨에서 루앙프라방으로 넘어갈 때 하필이면 미니 벤을 타가지고 누가 들어올 틈도 없이 딱딱 채워 현지 사람들과 부대끼며 8시간 동안 생고생을 하며 루앙프라방에 도착했다. 루앙프라방에 도착해서 미니 벤에서 내릴 때 정말 그 황홀함이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진짜 그 행복함 우어! 어렵게 라오스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에 갔는데 사실 이번 여행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캄보디아였다. 역사도 깊고 문화도 많고 캄보디아에 가면 꼭 보고 와야 할 앙코르왓을 보려고 캄보디아에 간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

앙코르 왓 같은 정교한 사원들과 유적지들은 정말 환상이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멋있었고 넓고 큰 만큼 볼거리도 참 많았다. 너무 넓다 보니까 며칠씩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루에

뚝뚝(일종의 택시 같은 자동차)을 타고 다니면서 빨리빨리 다 보았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46박 47일이라는 여행을 마쳤다.

사실 웃지 못 할 황당한 일이나 재밌고 힘든 일도 이것보다 더 많았지만 나에겐 먹지 못한 것과 엄청난 포스의 버스가 제일 재밌고도 힘들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사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나 영어를 정말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내가 불편한 것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여행을 하는 동안 불편한 점도 많았다. 하지만 영어를 능숙히 잘하는 산하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난 큰일 날 뻔했다. 히히 이것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잘 못 하는 것이 얼마나 서럽던지... 흑흑 아 정말 중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랬지만 이번 여행도 역시나 잊을 수 없는 뜻깊었던 여행이었다. 산하언니랑 범진이랑 같이 여행을 해서 즐거웠고 이 여행을 보내준 엄마에게도 감사할 따름이다! **가디히스쿨**

시끌벅적 4, 5학년들의 움직이는 학교

김태진 _ 5학년

4, 5학년의 움직이는 학교(별칭=무빙스쿨, MS, 발 달린 학교)는 학년별로 움직이는 1~3 학년들과는 조금 다르다. 대안적인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 인권, 평화, 환경, 음악, 영상, 경제, 예술, 뮤지컬, 복지 영역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예산, 단체 섭외, 프로그램, 숙식 모든 것을 스스로 기획해야 한다. 그로 인해 움직이는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의 소란(?)이 일어난다. 어떤 단체를 선택할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잘 곳을 못 구해서 안절부절, 가려고 했던 단체에 못 가게 되었을 때... 직접 3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체험하는 자유로움이 있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기획해야 하는 부담과 어려움도 있다.

나의 주제는 인권과 의료 두 가지였다. 방학 때마다 듣는 '교육공동체 나다'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 '아수나로'란 청소년 인권단체 친구들과 알게 되었고, 나름 친해지면서 1박2일 총회에도 참여하였다. 학교로 돌아와서 움직이는 학교를 준비하던 즈음 현숙쌤께서 주신 청소년인권 관련 자료에 '아수나로'와 '인권운동 사랑방'(이하 사랑방) 등의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마침 인권단체 친구들을 사귀면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터라 헤림, 이원이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의료 쪽은 내 꿈을 찾아나가는 발판

으로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그곳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무료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어서 선택하였다.

먼저, 인권 쪽의 얘기를 풀어 볼까나? 혹시 '4.14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이하 미학혁명)란 집회에 대해 아시는 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VS학교' 토론회를 통해 열기로 한 청소년인권 집회를 기획하기 위해 학교에서 그토록 많이 하는 회의를 곱빼기로 하고, 홍보를 위해 헤림이가 디자인한 자그마치 만 부의 전단지들을 들고 서울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덕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비에 당황 + 아침 5~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2주 동안 했다.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다가 교사들이 나와서 실랑이가 붙기도 했고 심할 때는 경찰도 왔다. 나도 어느 날 교사 3명에게 둘러싸여 '이거 불법이다' 느니 '학기 초에 애들 다 잡아놨는데 왜 이런 걸 돌리냐' 느니 '경찰서에 허락은 받았냐(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랍니다~)' 느니 하기에 열 받아서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라는 법률까지 공부했다. 중간 중간 인권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한미 FTA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 행사 당일엔 150명 남짓 되는 참여인원을 보며 10,000부나 준비한 전단지가 허탈해지기



도 했고, 교육부에 우리의 인권을 담은 풍선을 버리기 쉬우라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주는 극진한 배려까지 해주며 넘기려는데 전경들이 막아서기도 했다.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미학혁명이 끝나고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희망으로 부푼 청소년인권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의료 쪽에서는 무료 병원인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과 '다일천사병원' 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여태껏 환자로만 가던 병원에서 직접 차트를 만들고 접수도 받고 하니 느낌이 새로웠다. 봐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진료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수술 실과 병실 구경도 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도 나누었다. NGO단체의 상근자처럼 병원에 계속 계시면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봉사 활동으로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의 근무가 끝나고 이곳에 와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병원은 작는데과는 굉장히 다양해서 놀랐다. 아, 수술을 참관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꼭 보려고 했는데 이쉽게도 잡힌 수술 일정이 없었다. 방학 때 볼 수 있길 무지무지 기대 중이다. '다일복지재단' 의 '밥퍼' 라는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1000개 가까이 하며 학교 설거지는 설거지도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고 틈틈이 집에서 의학 관련 드라마와 책을 읽었다.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이라는 책에

서 모든 의사는 그들의 의사생활 중 적어도 한번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며, 의사들에게 요구할 것은 완벽이아니라 완벽을 향한 중단 없는 노력이라고 의사이자 이 책의 글쓴이는 말한다. 이걸 움직이는 학교 도중에 실제 있었던 일로 감기에 걸려서 약을 타가지고 왔는데 약이 잘못 들어가 있었다. 한 봉지에 하나씩 들어가야 할 흰색의 길쭉한 약이 한 봉지에는 없고 한 봉지에는 두 개가 들어 있었다. 대략 황당하다. 먹기 전에 발견했고 단순한 감기약이었기에 다행이지 중환자의 약이었다면... 마침 이 책의 의학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읽던 도중 직접 경험한 일이라 무섭기도 하고 의사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사실 무빙스쿨에 대한 얘기를 벌써 네 번째로 쓰는 것이다. 사랑방 홈페이지에, 보고서에, PPT에, 그리고 소식지에... 쓴 내용 쓰고, 또 쓰고, 문장력은 떨리고, 아이디어도 다 떨어졌다. 결론이 뭐냐면, 더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나올 2007무빙스쿨 보고서를 추천해드린다.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세세한 내용이 담긴 내 보고서를 포함해 더 재밌고 알찬 다른 친구들의 보고서도 보시길 적극 권해드린다. 절대, 더 이상 머릿속에서 글을 쥐어짜 수가 없어서가 아니다! 절대로!! 아, 잠깐!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편집을 나한테 시키는 건 아니겠지? **REBIN**

새 물결, 김태진 쌤을 만나보아요

리윤정 기자 (1학년)

김태진 쌤이 간디학교 쌤으로 동행하신지도
이제 한학기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비로우신 태진쌤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간디인들을 위해
저희 일상대반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엄선하여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이번 기사가 간디인들이 태진쌤의 2%를
더 알게 하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저희가 움직이는 학교를 다녀오는 동안에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그 동안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 학교 리모델링으로 온통 시간을 다 보냈었어요. 그 전까진 남자 기숙사였던 곳을 교실로 쓰려고 문도 새로 달고 밋밋하지 않게 색도 칠했구요. 각 방에 있던 화장실도 부숴드립니다.

일꾼들을 쓰지 않고 쌤들이 직접 일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었군요. 문도 달고 페인트칠도 하고 무엇보다 화장실도 부수고... 우와 또 다른 일도 하신 것이 있나요?
- 음악실과 교실 사이에 소리를 막기 위해 흡음재 붙이는 일도 했구요. 음, 도서관이나 강당 같은 곳도 리모델링 디자인 하고 페인트도 다시 칠했죠. 무엇보다 학교 청소 좀 했습니다.

오, 쌤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군요! 대단해요, 그런데요 쌤, 저희 학교 오시기 전까진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 이십 여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 대학에 출강을 나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작품 활동도 해 왔구요. 그러면서 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5년간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색다른 경험도 많이 하고 그 후 귀국하고 제천간디학교로 온 겁니다.

아~ 귀국후 바로 우리 학교로 오신 거였군요?

- 그렇죠. 참, 내가 간디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이야기 해 줘나요?

들은 듯도 하고요. 아드님이 산청 간디학교 졸업생이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아들 진웅이가 1997년도 산청 간디학교 입학생이라서 그 때부터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인연으로 제천까지 오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집중수업 기간에 강사로 오셨었죠. 지금은

정식교사가 되셨는데 집중수업 때와 지금 간디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것이 있나요?

- 지난 번에는 짧은 시간이라서 지금처럼 많은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해보는 공동체 생활이라 미숙하기도 하고 쌤으로서 학생을 만나면서 학생들과 부딪히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더욱 힘을 내게 되네요.

쌤, 힘들수록 화이팅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없는 일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쌤이 이번에 맡은 수업 '그림 여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그림여행은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차, 재능, 창의성 등 마음속에 깊은 곳에 눌러져 있던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진정한 자아를 재발견 해주게 하고 싶은 의미에서 개설했어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으로서 치유해주고 싶다는 느낌도 있었구요.

그렇군요. 많은 학생들이 그림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간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실 거죠?

- 먼저 자기 능력을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정말 넓고 크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요. 제가 만난 제자들 중에는 어렵게 미대까지 진학한 뒤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럴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지만 말고 실천 계획을 한번 쪽 적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가치의 고마움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주세요~

- 예, 일상다반사도 수고해주세요~

이상 김태진 쌤과의 인터뷰를 마칩니다. 전산오류로 예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모두 날아가 버려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열심히 응해주신 태진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 취재하게 되었는데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열심히 인터뷰해 준 라운정 기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솔뫼바람>을 찾아서

장희숙 _ 명예기자 (교사)

학교나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는 간디 동아리가 있습니다. 바로 풍물동아리인 솔뫼바람! 제천 간디학교의 '핵심 동아리'라고도 불리는 솔뫼바람은 간디학교가 산청에 있을 때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동아리입니다.

장수의 비결을 찾아보면 역시 노력입니다. 솔뫼바람 회원들은 학기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연습을 하고 있고, 방학에도 꼬박꼬박 풍물 연수를 다녀와 꾸준히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 간디학교에서 솔뫼바람의 인기는 2006년도 동아리 신입부원을 뽑을 때 가장 높았는데요. 전교생의 반이 이 동아리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동아리 중 가장 높은 지원자수를 가진 간디학교 락 동아리 간략연 보다 많은 지원자 수였다고 합니다.

간디N소식지에 동아리탐방을 하여 기사를 실는 일삼다반사에서도 학교 중요 동아리인 솔뫼바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솔뫼바람 유태영 회장님과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솔뫼바람은 무슨 동아리인가요?

솔뫼바람은 제천간디학교의 풍물 동아리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 풍물을 배우고, 또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솔뫼바람은 소나무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뫼바람은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말축제 때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준비한 풍물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솔뫼바람의 역사!

산청간디학교의 개설 초기에, 현재 제천 간디학교의 행정실 담당이신 김윤하 선생님께서 솔뫼바람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산청간디학교와 제천간디학교가 분리된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뫼바람 회원 뽑는 기준은?

풍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북치배(북치는 사람), 장구치배 혹은 수장구(장구 치는 사람), 쇠치배(쟁가리 치는 사람) 징치배(징 치는 사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회장 했을 때 각오!

처음 회장 했을 때 각오라... 처음에는 동아리에 발전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유지만 시키자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풍물의 기초를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각오만큼 발전이 있었나요?

친구들과 동생들이 모임 같은 일에 적극 참여해 줘서 흔들리지 않고 잘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또, 부회장 혜정이와 옆에서 지켜봐주던 선배들이랑 언제나 솔뫼바람을 이끌어 주시는 손진근 쌤 덕분에 동아리가 계속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조금 아쉬웠던 것은 후배들에게 풍물을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바람만큼 못 해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일년 동안 솔뫼바람을 하면서 느낀 점!

1, 2학년 때는 선배들을 따라다니기만 해서 못 느꼈는데 3학년이 되어 여러 공연 같은 것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솔뫼바람이 정말 활동이 많은 동아리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 말고도 마을 행사나 다른 외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실력을 쌓아가다 보니 함께 맞춰서 풍물을 할 때 느린 것 보다는 빠르게 이끌어 가는 것이 치배들(풍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더 즐겁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천칠 년 솔피바람에 들어올 신입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잘 치지 못해도 풍물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솔피바람에 들어와서 재미있게 풍물 치며 놀아요! 모두모두 환영 합니다!

- 이천칠 년 동아리 신입부원을 뽑을 때도 풍물을 잘 치지 못해도 좋아하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솔피바람 동아리에 역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질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인터뷰해 준 유태영 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 (이 인터뷰는 솔피바람이 차기 회장을 뽑기 전에 진행되었고, 2007년 5월 현재, 회장은 3학년 '백동훈'님으로 새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인**

고등과정, 지금 만족하십니까?

리윤정 _ 기자(4학년)

제천간디학교는 2004년까지만 해도 '중등과정 대안학교' 였지만 이듬해 2005년에는 교육과정을 늘려 '중고 통합형 대안학교' 가 되었다. 그때까지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은 갑작스런 중고 통합 소식에 혼란스럽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다. 입학예비생들도 계획만 있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고등과정을 바라보며 한번쯤 불안감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천간디학교가 중·고 통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에서 추구하는 철학 및 교육을 중학과정 3년으로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가 있다.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겨우 몸에 익히게 된 간디철학이나 학생의 긍정적 변화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 개인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므로

3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년제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등과정은 학습태도를 성립해나가는 시기였다면 고등과정은 무엇을 배우는 시기일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평화'를 주제로 공부하며 필리핀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오게 된다. 고 2가 되면 중국으로 체험학습을 갔다 오게 되며 학년 주제를 '진로'로 잡고 구체적인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마지막 고 3이 되면 고 2때 알아본 자신의 진로를 통한 인턴쉽을 하게 되며 인턴쉽을 바탕으로 졸업논문을 쓰며 마무리 짓게 된다.

이제 2년째를 맞고 있는 이 고등과정에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간디연구소를 맡고 계신 한석주 선생님께 고등과정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았다.



한석주 선생님은 '현재 사회는 경쟁사회이지만 간디학교가 추구하는 삶은 공동사회이니 만큼 소수가 갖는 확신의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므로 부족함을 같이 채워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수업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도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가가 학교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고 답변하여 주셨다.

간디학교는 학생의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학생의 의욕이 부족하면 강요하지 않는 이상 무기력해 질수도 있다. 배움의 가치라는 것은 학생이 찾는 것이다. 무궁한 배움과 공허한 배움의 차이도 학생이 갖는 것이다.

이제 막 일 년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도 고등과정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좋은 출발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작은 늘 불안해”, “그러므로 그 불안감을 없애야지”, “하지만 불안함은 어쩔 수 없는 감정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을 없애야 한다니까”, “그렇지만...”, “문제점이니까...”, 항상 같은 말들을 반복하게 되지만 무엇이 맞다 그르다 판단하기 이전에 몸으로 부딪혀봐야 하는 것이 진실이며 현실이다.

모쪼록 두려움과 기대가 동반 되는 고등과정을 시작하며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떠나는 설렘이 더 크기를 바란다. 그리고 간디인들이 고등과정을 통하여 삶에 꼭 필요한 배움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간디**

‘눈으로 보는 민주주의’ ‘맛으로 보는 민주주의?’

장성규 _ 기자(3학년)

민주주의, 그것은 간디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민주적으로 풀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등장한 눈으로 보는 민주주의라는 과목! 한번 그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음은 이 수업을 맡고 있는 장춘봉 선생님과과의 인터뷰이다.

이 수업을 왜 개설하셨는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2년 전 처음으로 간디학교에 발을 디딜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얼마나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 모든 이가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많은 합의의 틀이 필요할 텐데 소통과 대화의 방법은 어떠할까?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무비판적 다수결 편주의의 같은 문제점을 느끼며 살아가던 기간이었던 것 같다.

생활교사로서 간디학교 삶을 시작했지만,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생활교사로서 어느 정도 아이들과의 이해의 폭들이 넓혀지고 나름의 여유도 생기면서 개인의 자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다. 물론 생활에서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생활 중심의 소통과 대화 그것을 통한 화해가 아직 내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기는 하다.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거창한 수업의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다. 가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학습 모형을 빌려 볼까?’ 혹은 ‘협동 학습을 통해서 진행해볼까?’ 여러 수업 모형들을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사실 첫 수업이고 이전에 학생들이 어떠한 수업을 들었고 이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수업 방식 또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 같다. 물론 수업 초기인 요즘은 나 혼자 재미없는 낱말, 문장들을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 있다.

이 분야에 전문가인가?

절대 아니다. 다만 수업 역시도 삶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나와 학생들 서로 간에 배워나가는 시간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우수한 통치형태이다.
그것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서 존경하는 데 기초하기 때문이다.’

-J.F. 케네디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 내가 정의를 내릴 만큼 간단하지도 않고, 실은 내가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정치학의 측면에서는 기본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구성원 모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의 원칙과 그와 같은 권리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그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막연하나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의 커다란 진리를 가진 우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서로에게 물어보고 싶다. 인간은 인간관계라고 한다. 인간(人間)은 사람(人)과 사람(人)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사이에서의 궁극적 가치란 각각의 인간의 내부에 쌓여가는 배타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의미가 큰 것이다. 인간은 어떤 개인이나 존재 자체의 속성으로 환원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인이 더불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자신이 있기 위해서는 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이러한 관계들이 확대되면 그것이 곧 사회일 것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화해 - 화(和)는 쌀(米)을 함께 먹

는(口) 공동체의 의미이며 해(諧)는 모든 사람(皆)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言)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화해를 민주주의라고 하면 너무 생뚱맞을까?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수업을 통해서 민주적인 삶을 바로 구현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나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학기 동안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다. 수업의 과정 자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으면 한다. 그러다 보면 이번 학기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정도 인터뷰이면 이 수업에 대해서 알만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간디도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나 싶다. ‘천성의 민주주의자는 선천적으로 규율을 여행하는 자이다.’ **자비심**

2007년도 신선하고 새로운 기숙사 동장이 탄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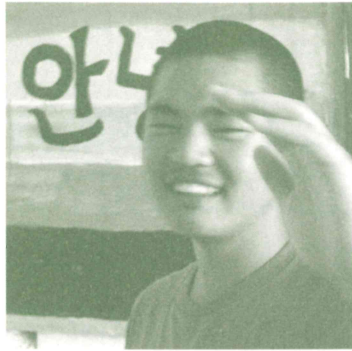
윤영미 _ 기자(1학년)

간디인들은 신입생들과 함께할 2007년도를 위해 기숙사 생활의 선두주자로 열심히 활동할 동장들을 선출했습니다. 2006년의 윤!동장과 진규동장의 대를 이어 안예지 학생과 최용현 학생이 2007년 각 기숙사 동장에 선출되었는데요, 안예지 학생은 후보 대상자들이 모두 후보자로 올라오게 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자기숙사의 새로운 동장이 되었고, 최용현 학생역시 남학생들의 많은 표를 단번에 받아 남자기숙사의 새로운 동장이 되었습니다. 2007년의 기숙사를 두 사감쌤과 함께 밝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두 동장님을 소개합니다!!!~

- 아주 많은 후보자가 올라왔었는데... 경쟁이 치열했죠?? (하하)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어떻게 뽑히게 되었나요?

안예지 동장(이하 안동장) : 아, 지금 여자 기숙사 사람들은 다 알 테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하였고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뽑아줬어요.

최용현 동장(이하 최동장) : 후보자가 서너 명 있었는데 그냥 투표하자마자 과반수가 넘어버렸어요. 평소 행실의 결과랄까? (이러고)



최용헌 동장



안예지 동장

- 뽑히신 소감이 어때요?

안동장 : 아, 평소 특별히 뭐 맡은 거 없이 학교 생활을 하던 제가 여자 기숙사를 맡게 되서 지금은 어안이 병병해요.

최동장 : 쑥스럽지만 기분 좋아요. 이런 거 해보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 작년 각 기숙사를 평가하자면?

안동장 : 뭐, 특별히 잘 되고 잘 안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번 한 해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들 사고를 많이 치기는 했지만요. 무단 침입도 그렇고, 도난도 그렇고, 규칙이 잘 안 지켜졌어요. (덧붙여 본인도 특별히 잘 지킨 건 아니라고 겸손을...)

최동장 : 작년에는 약간 풀어진 분위기의 연속이었어요. 학기 초엔 4학년과 부딪친 점도 있었고, 또 사감 쌤이 바뀐지라 규칙도 조금씩 풀어져 많

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2학기에는 전 학기보다 나아졌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 2007년 한 해 동안 이런 모습으로 기숙사를 이끌겠다. 하는 계획을 말해주세요.

안동장 : 지금 기숙사에 만들어 놓은 약속들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선후배 관계가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두가 친구 같은, 그런 분위기의 기숙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최동장 : 전보다 더 책임감 있는 규율 속에서 전보다 더 밝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포부를 비추는 한마디!

안동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에 발린말 ㅋ)

두 동장님들의 솔직담백하고, 객관적인 인터뷰 많은 도움 되었고요, 2007년 올 한해에는 새로운 기숙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지붕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R2EIN**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다가오는 새봄처럼 푸릇푸릇한 1학년과 4학년 편입생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1학년 25명과 2학년 편입생 1명, 4학년 편입생 5명 모두 모두 반가워요. 간디에서 꿈꾸며 함께 지내봅시다! 간.디.인.이.된.것.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봄날, 학교가 움직여요

4월부터 4월26일 까지 1,2,3,4,5 학년이 움직이는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1학년은 장흥 정남진 생약초 체험장에서 문화 체험과 풍물 체험을, 2학년은 '나'를 주제로 마임과 연극 등 프로그램을 하고 봉사를 하였고, 3학년은 제주도 도보순례, 4·5학년은 자신이 주제를 정해 짝과 또는 혼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두들 뜻 깊고 도움이 되었던 움직이는 학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 되는 대동제 한마당

5월 27일 생활관 하늘마루 준공식 이후 모두 하나 되는 간디 대동제가 있었습니다. 먹거리 장터와 바자회, 4학년들의 평화 부스, 학년별 체육대회 같은 맛있고 멋있는 행사들이 많아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내년을 기다려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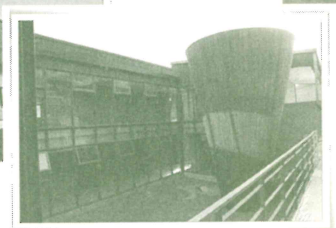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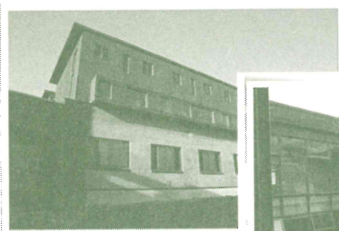
5학년 중국으로 떠났어요

5학년들이 5월 31일, 러시아를 향하는 배를 타고 해외체험 학습을 떠났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해 중국, 티벳을 거쳐 두 달 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고산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박시연 _ 2학년(기자)

학교 리모델링 그리고 하늘마루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활관으로 이사를 하면서 5월 27일 새로운 생활관 '하늘마루'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기관장, 많은 학부모님이 함께해 주셔서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에서 바글바글 살다가 넓은 생활관에서 지내는 것이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또 기숙사로 쓰던 2층 공간이 비면서 예쁜 교실로 리모델링 되어 많은 학생들이 기뻐합니다. 새로운 공간이 생긴 만큼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등교를 하려고 아직 적응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지내면서 멋진 기숙사를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 합니다. 전교생이 와글와글 부산하더니 물이 찰방대는 세숫대야를 하나씩 들고 들어와서는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뺨들을 의자에 앉히고 발을 씻겨 줍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으로 어찌나 정성스럽게 발을 닦는지 황송한 마음에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몸을 굽힌 아이의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곳에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선생의 발을 정성스레 닦던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앞으로 다가올 힘든 어느 순간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을 압니다. 찰방이던 물소리와, 매끄럽던 비누의 촉감과, 발을 감싸던 수건의 포근함을 기억하며 가쁜한 두 발로 세상에 필요한 한 가지 길을 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스승의 날은 있어도 스승이 없는 시대라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만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사랑하여났고 느린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실 많은 스승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스승님들께 오늘 의 평화를 바칩니다.

| 편집 뒷 이야기 |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리가 납니다. 작은 산골 학교에도 하얀 찔레꽃이 지천에 피어나는 소리, 밤마다 울려 퍼지는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 비탈진 마을길을 오가며 아이들 재잘대는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겨울과 봄을 합친 소식지가 오랜만에 세상을 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움직이는 학교 다녀오고, 새로운 생활관 '하늘마루'로 이사하고, 예전 가숙사로 쓰던 학교 건물도 예쁘게 새 단장하느라 간디인 모두 숨이 좀 가 뻣습니다. 두서없이 사는 일이 늘 분주하니, 늘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힘겨우나 살맛나는 그 소리들을 걸러내지 않고 소식지에 다 담아보고 싶었는데 잘 전해질지 모르겠네요.

신문부 일상디번사 새로운 기자들이 들어와 새바람을 일으켜주고 있으니 초록이 담백 담긴 여름호를 약속드리는 것으로 오래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 대신해도 되겠지요.

- 월악산 자락에 한기득 봄을 펼쳐놓고, 장희숙